

'V12' 타이거즈 특급 대우 "이 맛에 우승한다"



비즈니스석 타고 미국행... 25일~3월 5일 미·일 스프링캠프 이범호 감독·재활 이의리 등 60명... 김태형 '신인 유일' 참가

KIA 타이거즈가 2025시즌 위명업을 위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 여배원으로 간다.

KIA가 오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미국 여배원에 위치한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와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른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 22명과 '주장' 나성범을 필두로 선수 38명 등 총 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 이 이번 캠프에 참가하고 신인 중에는 1라운드 지명 선수인 김태형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 중인 이의리도 캠프에 참가해 복귀를 위한 몸만들기에 들어간다.

선수단은 22일과 23일 미국으로 떠난다. 이틀에 걸쳐 선수단이 이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미국으

로 건너가기 때문이다.

우승 후 직접 축송회를 주최했던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회장이 다시 한번 톡 지원에 나서면서 선수단은 비즈니스석에서 기본 중계 캠프를 시작한다.

KIA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최소화, 빠른 시차 적응으로 인한 훈련 효율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우승 선수단'으로 특급 대우를 받고 캠프로 떠나

는 선수들은 미국 여배원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1차 훈련을 한다.

여배원에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하면서 위명업을 하는 KIA는 이후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나선다.

2월 18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선수단은 2월 20일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전 체제로 전환해 경쟁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실전 무대도 준비됐다. KIA는 2월 22일 NPB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한화 이글스(2월 25일), LG 트윈스(2월 27일), 삼성 라이온즈(3월 2일), KT 위즈(3월 3일)와 5차례 실전을 갖는다.

◇KIA 여배인-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

▲감독 : 이범호 ▲코칭스태프 : 김주찬 손승락 정재훈 이동걸 타케시 홍세안 조승범 김민우 조재영 윤해진 ▲전력분석 : 김상훈 방석호 이진우 박규민 신용진 ▲트레이닝 : 박창민 정상욱 정영 조희영 박준서 황중현 ▲투수 : 양현종 김대우 이준영 임기영 조상우 전상현 유승철 김기훈 정해영 김도현 최지민 황동하 윤영철 광도규 이의리 김태형 네일 율러 ▲포수 : 김태균 한준수 한승택 ▲내야수 : 김선빈 서건창 박찬호 김규성 변우혁 박민 홍종표 김도영 윤도현 위즈덤 ▲외야수 : 나성범 최형우 이창진 이우성 최원준 박정우 김석환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태국 방콕서 '승적' 담금질

2월 3일까지 2차 동계훈련

'승적'을 외치며 전남드래곤즈가 태국 방콕으로 2차 동계훈련을 떠났다. (사진)

전남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이동했다. 지난 3일부터 광양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했던 전남은 체력을 다진 뒤 방콕에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선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원팀'으로 호흡을 맞추는 게 이번 훈련의 우선 목표다.

전남은 2025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했다. 지난 시즌 충남아산의 2위 돌풍을 일으켰

던 김현석 감독에게 새로 사령탑을 맡겼고, 김경재, 구원준 등 베테랑 선수들과 민준영, 이준, 양지훈 등 K리그에서 활약한 즉시 전력감 선수들로 새 전력을 구성했다.

또 팀의 에이스인 발디비아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새 외국인 선수로 호안과 레안드로를 영입하면서 '브라질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전남은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알베르띠까지 더해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젊은피도 수혈했다.

전남 U18인 광양제철고 출신의 이동현·정태인·손건호와 프로계약을 했고 정장민·류광형 등 유망



주 선수들도 영입해 'U22'를 활용한 다양한 옵션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지난 시즌 활약한 박태용, 최봉진, 김용환 등과 재계약을 하면서 전력의 큰 토대

지켰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오는 2월 3일까지 방콕에서 구슬땀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표류 길어지는 축구협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무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는 것은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위탁신청 검토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축구협회에 보낸 통지서에서 "우리 위원회는 3월 5일 최초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업무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정상 임의위탁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더라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임의위탁 선거는 위탁단체인 대한축구협회와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구분해 관리하게 돼 있어 현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당 선거를 전반적으로 총괄 위탁·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같은 법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통지)에 따라 해당 선거를 미수탁한다"고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중앙선관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리를 위탁해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 일정은 7일 법원이 허정무 후보 측이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전면 중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라고 주장했고,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에 이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했다.

협회 정관 제23조 7항은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에서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탁 운영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 선거사무 범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등의 업무는 해당 단체, 축구협회의 선거운영위가 수행해야 할 몫이다.

축구협회도 14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이달 중으로 선거운영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초 이사회를 거쳐 선거업무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운영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허정무 후보 세 명이 출마했다.

/연합뉴스

손 '골맛'... 팀은 '쓴맛'

손흥민, 복런던 더비서 선제골 리그 6호골... 토트넘은 1-2 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복런던 더비에서 리그 6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6일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1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었다.

동료의 크로스가 전방 경합 상황에서 흘러나오자 손흥민이 오른발로 통렬한 중거리슛을 날려 아스널의 골대를 갈랐다.

골대 오른쪽 구석을 노린 손흥민의 슈팅은 아스널 선수 발을 스치고 골대로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16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한 달 만에 리그 득점포를 가동했다.

직전에 치른 13일 탬위스와 FA컵 3라운드에서 올린 도움에 이은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다.

손흥민은 리그 6호 골이자 공식전 8호(유로파리그 1골·카리바오컵 1골) 골을 기록했다. 도움은 리그에서 6개, 공식전에서 7개(FA컵 1개)를 기록 중이다.

복런던 더비 9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23분 허샬리송과 교체되며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손흥민은 아스널에 강한 면모를 이어갔으나 토트넘은 5경기 만에 리그 승전고를 울리는 데 실패했다.

토트넘은 사우샘프턴전 5-0 승리 이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무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토트넘이 리그 복런던 더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둔 건 2010년 11월(3-2)이 마지막이다. 이후 15년 가까이 아스널 원정에서 승전보를 보내지 못했다.

토트넘은 왼쪽의 손흥민, 최전방 도미니 솔란케, 오른쪽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부지런히 아스널 골문을 위협했고, 손흥민의 골로 승리한 걸음 다가는 듯했다.

그러나 홈에서 강한 아스널의 반격은 거셌다.

전반 40분 아스널 가브리엘 마갈랑이스가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경합하던 솔란케의 몸을 맞고 토트넘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솔란케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4분 뒤에는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역전골을 넣었다. 역승 상황, 골 지역 왼쪽에서 송곳 같은 원발 슈팅을 날려 2-1을 만들었다.

양 팀은 후반에도 치열하게 서로의 골문을 노렸으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11경기 무패 행진을 벌인 아스널은 2위(승점 43)로 올라섰고, 토트넘은 13위(승점 24)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전반 25분 선제골을 넣은 손흥민이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